

The Word **XII**.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적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 - 죄의 본성 다스리기

1. 하나님의 형상 인간

하나님의 형상된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감의 관계 안에서 교제 할 수 있었다.

[창세기 1:27-28]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추상적인 교제가 아니다. 창세기 1:27-28의 말씀처럼 구체적이다. 인간은 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다. 인간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있는 교제로부터 온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2.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성.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Then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to the garden of Eden to cultivate it and keep it. (NASB)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에덴을 '경작하는 일'과 '지키는 일'이다. 에덴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만의 의미가 아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했던 최초의 공간이다. (하마콤) 인간의 모든 행복은 바로 그 장소 '하마콤'에서 시작 되었고, 경작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곳이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에덴'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이 다시 회복되어,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며, 에덴은 다시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영원한 친밀감의 교제가 회복되는 중요한 '하마콤'이 된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한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 되었다. 그 결과, 땅을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땅에 지배를 받는 육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 되었다. 이 때부터 인간은 '고통'을 알기 시작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3. 죄의 본성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생겨났다. '본성, 본능'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 본성 : 사람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

* 본능 :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

본성은 인간의 성질을 말하며 본능은 동물적 본성을 말한다. 두 개념 모두의 공통점은 학습이나 경험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학습으로 경험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태생'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까지 가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죄의 본성의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등장이다.)

4. 죄인과 의인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하나는 ‘에녹, 노아’와 같은 ‘의인의 계보’이며, 또 하나는 ‘가인’과 같은 ‘죄인의 계보’이다. 타락한 이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는 의인의 계보에, 하나는 죄인의 계보에 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매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동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마음안에 에덴처럼 잘 ‘지키고, 경작했다’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며, 경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의 전승과 확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며 경작했던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다. ‘동행’이란 단어에 집중하라. 동행은 이벤트가 아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닐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며 경작했다는 사실이다.

5.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 - 본래의 의미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율법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이다. 구체적으로 ‘죄의 본성’을 다룬다. 율법은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했다. 다른 선택이 없다. 율법은 무엇인가? ‘죄’를 짓지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물론 율법의 본질적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율법의 본질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율법은 복음을 깨닫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책이 아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다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17-18]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힘을 다하여 지켰다. ‘죄의 본성’의 요구대로 살지 않기로 노력했다는 것이다. 율법은 구체적으로 본성에 대한 실제적 ‘훈련’이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역할을 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있다. 무슨 말인가? ‘훈련- discipline’을 말한다.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연약한 죄의 본성에 빠지지 않는 실제적인 ‘훈련’을 말한다.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체화’하는 작업이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래서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경작하는 일을 한다.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딤후 3: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작하는 일’을 해야한다.

6.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적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

(1) 말씀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다. 연약한 영역이 많다는 것이다. 훈련의 목적은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 마음안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구조가 없거나, 희미하기 때문이다. (연약한 속사람)

정령이 되어있지 않은 마음이다. 이것은 유혹의 상황이 오면 무질서해진다. 그 무질서함이 결국 믿음의 나무의 뿌리를 뽑아 버린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다.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3)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7.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다.

습관의 중요성. (토브 정신건강연구소 강의 추천, 박홍규 대표)

(1) 습관의 형성 - 습관고리의 형성 (견고한 진)

신호 - 행동 - 보상은 습관의 경로를 통해 신호- 반복행동 - 보상으로 변화된다.

신호는 행동으로 옮겨지며 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때 보상을 이루었던 행동이 반복된다. 반복행동이 습관이 되며, 이 때 형성된 'craving' (갈망, 끌림, 땡김) 이 습관의 원인이 된다.

(2) 습관고리를 깨는 법

ㄱ. Craving 의 소멸 : 갑자기 담배냄새가 싫어지거나 술맛이 역겨워 질때가 있다.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craving의 소멸은 굉장히 어렵다.

ㄴ. 신호를 차단하는 법 :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할 때 습관적 행동을 하는 신호를 받고 있다면, 신호를 주는 그 환경과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ㄷ. 신호 차단이 어려울 때는 행동을 대체하는 다른 행동을 찾는다

(흡연의 행동 - 껌이나 사탕 등) 유사한 보상을 가져오는 다른 대체행동을 한다

(3) 거룩한 습관의 형성 : '작은 습관을 형성하는 일' - 다윗의 물맷돌

[디모데후서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a. 말씀 : 말씀정독 - 듣는마음 / 말씀통독 훈련

b. 기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영적신호)에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보상은 바로 '기쁨'이다. 이것이 경작되어 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